+

경제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조6천억 쓴다

내년 예산 올해比 8천억 ↑ …스타트업 등 육성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 ·재기에 1조원 투입도

정부가 내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 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 다 8천억원 늘어난 4조6천억원을 투입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 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4조6천억원 중 3조6천억원은 중소

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우선 민간에서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은 유망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 천억원 증액한 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

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 대상도 500곳에서 720곳으로 늘어난다.

국내 벤처기업과 글로벌 기업·대기 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데는 올해보다 155억원 늘어난 50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우수 중소기업에는 신성 장 자금을 총 1조7천억원 공급하고 규 제혁신과 제조환경 스마트화, 지식재 산권 보호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협 업 종류에 맞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올해 6천억원에서 내년 7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도 신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데 1조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폐업, 재취업(창업)을 지원하 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을 올해 2만9천명에서 내년 3만4천명으로 확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과 스 마트화에도 2천억원을 지원하고 '기업 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 화에는 총 844억원을 투입한다.

혁신형 창업 지원 대상은 올해 500 곳에서 내년 575곳으로 확대하고 체험 점포를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순차 개 편하는데는 199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투데이 경제

광주국세청 '중소상공인 위원회'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광주 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경제·직능단체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경청 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 소 및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 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 제·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문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개정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광주세관, 추석 연휴 24시간 통관체계 가동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 기간 수출입 통관 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수출입 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 다고 30일 밝혔다.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 한다. 수출 화물 선적 의무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 에도 선적 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해주기로 했 다. /박은성 기자



LH 광주전남본부, 우크라 난민 등 지원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30일 우크라이나 난민과 다문화아동 지원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재경 LH 광주전남본부장(사 진 가운데),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장, 박희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 과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LH 광주전남본부의 사회공헌기금 으로 마련됐으며 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내가 꿈꾸는 학교'사업비로 사용된다. /기수희기자

광주상의 'AI Test-Bed 경진대회' 공모

'AI 기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주제…9월16일까지 접수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는 총상금 1천500만원 규모의 '2022 AI T est-Bed Korea 산업지능화 투자 경진 대회'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최근 광주시 주력산업이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반도체, 메디 케어, 에너지, 광산업, 스마트가전, 뿌 리산업 등 8대 산업으로 개편됐고 2024 년까지 데이터 중심의 최첨단 인공지 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AI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공모주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 니스 모델'이며 광주 8대 주력산업과 연관된 주제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경 우 가점이 부여된다.

참가대상은 인공지능 분야 예비창 업자, 스타트업, 대학생 등 전국민으로 대회공고문은 광주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요일정은 9월16일까지 아이디어 를 접수 받으며 중간평가를 통해 결선

무대 진출 10개팀을 선발한다. 이후 선 발된 10개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고 도화캠프를 운영하며 9월2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AI-TECH+ 전시회 특설 무대에서 IR을 통해 5개팀을 최종 선 발하다.

상금규모는 총 1천500만원이다. 대 상 1개팀에 500만원의 상금과 광주시 장상이, 최우수상 2개팀에 각 300만원 의 상금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상,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상이, 우수상 2개 팀에 각 200만원의 상금과 광주과학기 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상, 한국 인공지능협회장상이 각각 부여된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이 번 공모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 록 결선무대 진출 10개팀에 AI-TECH + 전시회 별도 부스를 제공, 해외 바이 어 및 AI 유망기업들에게 IR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거래마켓을 운영 해 수상팀에게 실질적 거래창출의 장 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코스피 상승…환율 하락 30일 오후 마감한 코스피가 전날보다 24.04포인트(0.99%) 오른 2,450.93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내린 1,346.7원에 종료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13포인트(2.20%) 오른 797.02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연합뉴스

광주·전남 상장사 상반기 실적 부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페퍼저축銀,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내달 18일까지…20명 선발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9월18일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핫페퍼스 (Hot Pepp ers) '7기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핫페퍼스는 제2금융권 최초의 대학 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 에게 금융권 및 스포츠 관련 마케팅 실 무 경험과 콘텐츠 제작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해 마련됐다.

고 개인 또는 팀(최대 4인) 형태로 가

해 약 20명을 최종 선발하며 핫페퍼스 7기는 10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두달 간 페퍼저축은행의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페퍼저축은행 A I 페퍼스 배구단 홍보 미션 수행을 위 해 광주 홈 경기장(페퍼스타디움)에

도 방문할 예정이다. 페퍼저축은행은 핫페퍼스에게 소정 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팀을 대상 으로는 상금도 수여한다. 이밖에 전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 가 강연 및 실무진 멘토링 세션 등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인턴십 기회 및 채용 우

매출 증가 불구 영업이익·순이익 적자 확대···부채율도 늘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 상장사들 은 올 상반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적자가 확대된 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제 공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022년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4 개사와 코스닥 20개사의 매출액은 35 조9천3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4%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4조8천630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1조7천504억원) 에 비해 13조1천126억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9천797억원)에 비해 9조6 천932억원 감소하는 등 적자폭이 커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1.37%로 전 년 같은 기간(-5.34%) 대비 36.03%포 인트(p) 감소했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29.70%로 전년(-2.99%) 대비 26.72% p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13.18%로 지난해 말(1 39.32%) 대비 73.86%p나 높아졌다.

지역 내 실적 비중 최상위사인 한국 전력(지역 전체 매출액의 85.92%)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5조598억원으 로 전년 동기 대비 11.38%(5천172억 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1천420억 원, 순이익 1천377억원으로 전년 동기

+

대비 각각 44.21%(1천126억원), 39.27 %(891억원)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은 34조9천75 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6% (3조1천67 3억원) 증가했으나, 영업이익 -14조8 천577억원, 순이익 -10조6천731억원 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조585억원, -9 조6천492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영업손실 15조51억원·순손실 10조8천106억원) 로 지역 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의 영업

이익과 순이익의 적자가 커졌다.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은 9천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391억 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541억원)됐다. 순이익은 2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9 9.52% (-439억원) 감소했다./기수희기자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제사나라 ▶ 자매회사: **▼ 국제외식산업(주) 출장뷔페**